

### 광주 동구, 독거어르신 ‘낙상을 예방해孝’ 안심케어 추진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2천만원 후원...513세대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이남용 지사장 “앞으로도 지역사회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 다할 것”

광주 동구는 한국마사회광주지사 후원으로 관내 독거어르신 대상 미끄럼방지매트를 지원하는 ‘낙상을 예

방해孝’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낙상을 예방해孝’ 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신체기능과 균형 감각이 저

하된 독거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국마사회광주지사로부터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욕실 또는 화장실에 설치할 미끄럼방지매트를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513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남용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지원해주신 한국마사회광주지사 측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1인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등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친환경 농법을 고집해오고 있다. 지역 아동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은 먹거리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사에 걱정이 많았지만 지난 4월부터 반남, 노안 지역 텃밭에서 감자를 재배해 20개 읍·면·동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했다.

감자 수확량만 20kg박스 46개, 10kg박스 60개에 달한다. 어르신들은 밭갈이를 통해 김장용 무, 배추를 재배하기로 했다. 수확 후에는 주민들과 함께 ‘골목길 김장축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텃밭 가꾸기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 외에도 마을 경관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어르신들은 마을 곳곳의 빈집, 유휴지, 각종 생활폐기물이 적치된 공터를 보기 좋은 텃밭으로 가꿔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정윤 노인회장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은 물론 텃밭 작물을 아동,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세대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험과 연륜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노인 활동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버려진 유휴농지를 활용해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을 지역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어르신들이 있다.

안·반남·공산면 지역 유휴농지와 버려진 땅을 활용해 텃밭을 일구고 있다. 텃밭에서는 감자, 고구마, 무, 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텃밭 가꾸기 활성화

친환경 자연농법 지역아동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바로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회장 서정윤) 어르신들이다. 140여명의 어르신들은 지난 2015년부터 노인사회활동 텃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주 읍성권과 노

추, 열무, 양파 등 계절별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된다. 어르신들은 수십년에 걸친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질 퇴비와 화학 농약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 장흥 장동면, ‘희망 일자리’ 첫발

코로나19 여파 경제활동 힘든 지역주민 생활안정 도모

장흥군 장동면은 6일 사업참여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장동면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일자리’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힘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다. 사업참여자들은 하루 4시간 도로변 잡풀제거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만들기에 일조하며 가정의 경제안정을 지킨다.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힘든 이때,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성호 장동면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주민들이 건강한 지역만들기에 동참하며, 일정 부분 가계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앞장서 찾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 강진군, 찾아가는 가족행복학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양육태도 코칭’ 교육

지난 2일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족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원민우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원장의 ‘부모양육태도 코칭’이란 주제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아하는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고 지지·격려받는 시간이 됐으며 마술로 자녀와 소통하기, 우리 가족만의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가족행복학교’는 7월 중에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8월 중에는 작천면, 병영면, 읍천면을 대상으로 9월까지 매주 1회, 총 9회 추진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